

#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복음센터로 만든 디도

## -복음으로 여는 디도서-

창세기41:38, 디도서1:4-5

정윤돈 목사님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사탄에게 속아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이 땅에서 6 가지 문제, 12 가지 문제, 오만가지 문제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땅 끝까지 이르러 증거할 수 있는 천 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속지 않고 강단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강단메시지의 성취의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의 주역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강단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과 해답과 나에게 주신 미션을 발견하며, 상처 입은 자는 치유받는, 힘을 잃은 자는 용기를 얻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다.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또 하나의 목회서신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전도자, 목회자를 통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 복음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해 오셨다.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과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디도는 너무 힘든 현상이었지만 가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장을 다 뒤집고 바꾸었다. 사도 바울도 하지 못했던 일을 디도가 다 처리하였다. 우리도 윗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중직자와 램프들이 되어야 하겠다.

이 그레데 섬을 일반 세계사에서는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문명을 크레타문명, 미노아문명, 미노스(왕이름)문명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크레타 섬은 여러가지 면에서 세계의 섬 중에 가장 특별하고도 유명한 그리스 앞바다 지중해에 있는 섬이다. 왜냐하면 크레타 섬은 그리스문명의 발원지이고,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고향이며 여신승배와 그리스신들에 대한 우상승배와 제사를 가장 먼저 시작한 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크레타 섬은 철학, 상업, 해상국 제무역과 고대건축술도 뛰어난 섬이었다. 이러한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었다. 자부심, 자긍심, 우상승배, 세상적인 지식과 전문성과 교만함이 있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이기려 하는 불신앙이었다. 그것이 세상의 세계관이다. 불신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원죄이다. 사도 바울은 사각지대 재앙지대와 같은 그레데 현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고 나중에 디도서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가장 소중

복음의 현장으로 바꿀 수 있다. 여러분이 힘들고 화가 나고 참지 못할 때가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그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살림, 평안으로 나를 치유하고 지켜야 한다.

### 1. 첫 번째로, 그레데 섬과 성도들의 문제점들은 무엇이었을까. 이 어려운 현장에 디도를 파송한 것이다.

(1) 그레데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는 율법주의자인 할례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디도서 1 장 10 절에 보면 그들의 영적상태를 몇 가지로 말하고 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 안에 내 동기, 욕심, 계획이 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복종은 함께 가려면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야지 현장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헛된 말을 하며’ 성경에서는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고 말한다.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리스도인들은 불순종이 아니라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 그냥 예스맨이 아닌 ‘이유있는 예스맨’이 되어야 한다. 예스맨은 아멘의 사람을 말한다. 아멘의 사람이란 믿음의 사람을 말한다. 믿음의 사람이란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최적, 최선, 최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인재들은 아멘의 사람들이었다. 디도도 예스맨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레데 사람들의 각인, 뿌리, 체질은 창세기 3장, 6장, 11 장의 상태였던 것이다. 이유있는 예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굉장한 깊이가 있어야 한다.

(2) 두 번째 문제는 그들 중에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도 있었다. 그 결과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자면 보이스포싱이나 도박이나 사기성 비트코인 같은 일을 시켰던 것이다. 디도서 1 장 11 절을 보겠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그레데를 떠났던 것 같다. 그래서 디도에게 위탁했던 것이다.

(3) 그레데 섬은 근본적으로 오래된 문제들이 많았다. 사도 바울은 한 고대철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레데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다. 디도서 1 장 12 절에서 14 절의 말씀을 보겠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반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따를 것은 따르고, 따르지 않을 것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1 장 12 절에 기록된 ‘어떤 선지자’는 BC.630 년에서 BC.500 년 사이에 살았던 ‘에피메니데스(Epimenides)’라고 보고 있다. 이 사람은 선견자, 예언자이면서 철학자였다. 당시 ‘그레데 사람’이라는 말과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동의어로 사용할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과장과 거짓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이 거짓과 과장으로 만든 것이 그리스로마신화이다. 그들이 하고 다녔던 대표적인 거짓말은 ‘제우스의 무덤이 그레데에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그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된 것은 그레데 섬이 오래 전부터 무속, 점

술, 우상에 빠져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현장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파송했던 것이다.

## 2. 두 번째로는, 이러한 그레데 섬을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1) 그레데 섬과 같이 영적인 문제가 많은 현장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전도의 사명을 가진 전도자가 참된 전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말씀운동을 통하여 개인과 현장을 변화시키시기 때문이다. 디도서 1장 3절을 보겠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전도를 '내게 맡기신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드린다. 디도 또한 이러한 전도에 대한 사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2) 두 번째로 그레데와 같은 저주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디도와 같은 세계화된 TCK 제자를 파송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국제적인 인물로 만들어야 한다. 디도는 헬라인 출신의 TCK 선교자였다.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결국 디도는 그레데교회를 세계선교와 RUTC 운동을 후원하는 복음센터로 변화시켰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사망 전 마지막으로 보내 편지에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달마디아는 지금의 크로아티아의 해안지역이다. 이탈리아 동쪽 건너편 지역이다. 즉, 디도는 그레데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레데교회의 후원으로 유럽전도를 위해 파송되었던 것이다. 우리들도 디도와 같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현장으로 파송될 수 있는 복음캠프의 제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3) 그레데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은 복음적이고 삶이 검증된 목사와 장로를 잘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기준을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장로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목사)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목사의 자세, 규모를 말하고 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4) 네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2장 전체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2장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 디도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다. 2장 12절에서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절대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다. 첫째는 버려야 할 것이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쉽지 않지만 도전해야 한다. 두 번째는 취할 것이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주신 최종목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 안에서 최종목적은 먼저 구원받게 하는 것(구원의 사역)과 선한 일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이러한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겠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말씀으로 복음으로 외유내강해야 한다. 목사님이 옳다고 꾸지람을 했을 때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다. 가정과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5) 그러나 그레데와 같은 영적인 문제가 가득한 현장은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임할 때 새롭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란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서 '중생의 씻음'이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다. 이 중요한 사역에 주역으로 쓰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결론으로, 오늘도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우리는 어떠한 현장도 황금어장, 복음센터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듭난 제자요 다른 사람들도 거듭나게 만들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하겠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 나라, 5000 종족 중에서 디도와 같은 TCK 제자를 찾고 키워서 파송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전 세계에 복음 RUTC를 세우기 위해 24시간 기도하며 공부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참된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한다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작품을 만들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실천이다. 나 자신과 우리 가문에 아직 남아 있는 크레타문명과 같은 우상문화, 세상지식, 철학, 종교적, 율법적인 체질과 세상적인 물질관, 경제관은 무엇인지 적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 보기를 바란다. 예수생명, 예수능력 안에서 237 치유서밋의 주역으로 쓰임받기 위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인생, 서밋의 인생에 대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디도와 같이 이 현장을 복음의 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